



식약처,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

-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중복투약 환자 방문 의료기관 집중점검('23.11월)
- 마약류 의료쇼핑 중독의심자 관련 의료기관 등 13개소 수사의뢰(고발)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경찰청·지자체와 함께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,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.

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‘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’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.

아울러 이중 처방전·진료기록부 기재,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, 동 수사의뢰(고발)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‘(가칭)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’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.

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.

< 점검 대상 선정 및 수사 의뢰 기준 >

- ▶ 수면마취제*를 하루에 5곳 이상에서 투약받은 젊은 의료쇼핑 환자가 다수 방문하고, 해당 환자에게 다회 처방한 의료기관 점검 ⇨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 자문 및 식약처 종합 검토 ⇨ 수사의뢰
 - * 프로포폴, 미다졸람, 케타민(1종 외 2종~3종을 섞은 소위 ‘칵테일’ 포함)
- ▶ 의사의 마약류 처방이 불가능한 기간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보고 이력이 있는 기관 점검 ⇨ 점검 결과 위반 사실 확인 ⇨ 수사의뢰
 - * 휴진기간, 해외출국기간, 대진 의사 신고기간
- ▶ 하루에 2곳의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의사의 명의로 처방·투약보고 이력이 있는 기관 ⇨ 점검 결과 위반 사실 확인 ⇨ 수사의뢰

식약처는 앞으로도 ‘마약류오남용감시단’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·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.

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·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※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 및 과다처방 의료기관 적발 사례

환자 1(20대, 여)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(’22.1월 ~ ’23.6월) 중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, 미다졸람, 케타민을 투약받은 환자로 분석
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단독 투약을 받기도 하고,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한 번에 투약받기도 함
이 환자는 해당 기간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, 이 중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의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(A, B, C, E, F, G, H) 7개소를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투약 및 다수 투약 받은 사실을 확인



<붙임> 질의응답

담당 부서	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	책임자	과 장	송현수 (043-719-2841)
		담당자	사무관	최정현 (043-719-2832)
담당 부서	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	백승언 (02-3150-0141)
		담당자	경 정	이주만 (02-3150-2171)

질문

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중독의심 환자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배경은?

답변

- 수면마취제 의료쇼핑 중독의심(오남용) 환자 등에 대한 점검·관리 강화 등 ‘23년도 국정감사(10월)에서 점검 필요성 제기 등과 관련하여 ‘23.11월에 기획(합동) 주제*로 선정하여 총 21개소**를 점검하였음

* ▲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(하루 5곳 이상) 의심(12개소) ▲의사가 대진·휴진·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(3개소) ▲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(한방병원 6개소)

** 당초 22개소 점검계획이었으나, 1개소 폐업으로 총 21개소 점검실시

질문

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중독의심 환자 및 의료기관 관련, 점검대상 선정방법 및 소재 지역은?

답변

-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·투약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, 의료쇼핑 중독의심 환자가 다수 방문한 다회 처방 의료기관 12개소 선정하여 점검하였음

- 수면마취제(프로포폴, 미다졸람, 케타민)*를 하루에 5곳에서 투약받은 젊은층 의료쇼핑 환자가 다수 방문한 다회 처방 의료기관 12개소 선정함

* 수면마취제 1종 외 2종~3종을 섞은 소위 ‘칵테일’ 포함

-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12개소 모두 서울시 강남지역(강남구, 서초구)에 소재함

질문

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(의심) 판단 및 수사의뢰 대상 선정 방법은?

답변

-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·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처방·투약 사례 관련 확인 자료 등 점검결과를 취합해 의사·약사·법률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‘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’의 오남용 해당여부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오남용 우려(의심)자를 선정하여 수사의뢰 조치하였음

질문

향후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중독의심 환자에 대한 집중점검 확대 실시 계획은?

답변

-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·투약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, 마약류 오남용·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쇼핑 중독의심 환자 및 다회 처방 의료기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·선정해 오남용 점검을 지속·강화할 계획임